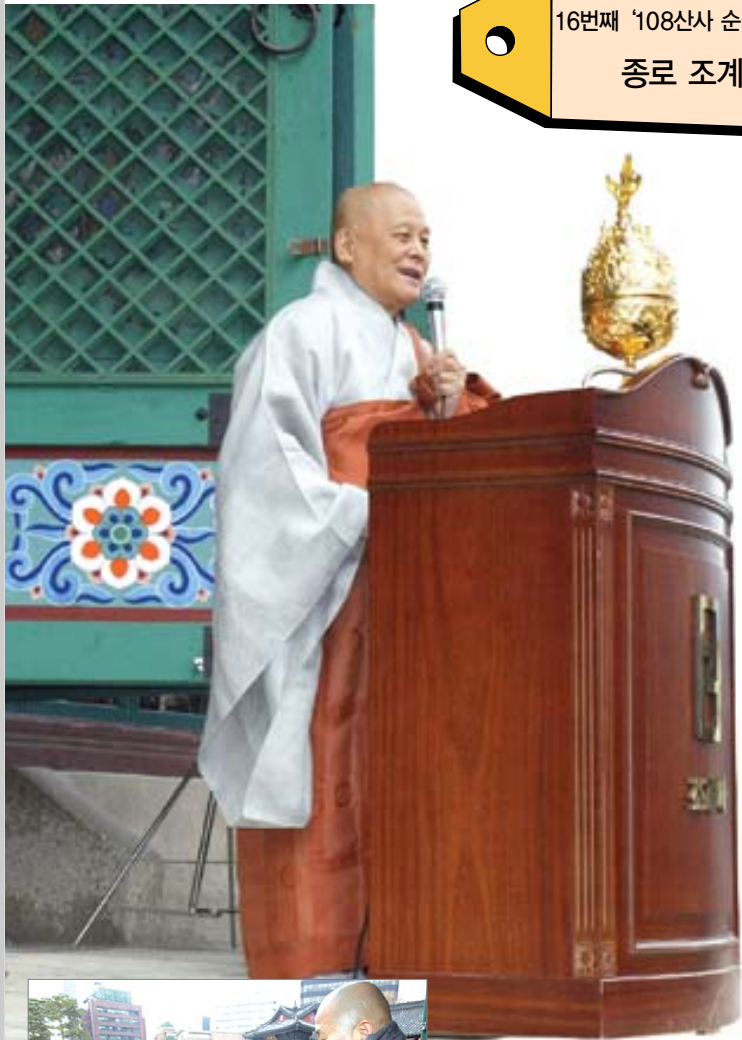




16번째 '108산사 순례 기도회' 종로 조계사



- ① '조계사' 글씨가 새겨진 염주알을 나눠주고 있는 선목 혜자 스님.
- ②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순례 참가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 ③ 선목 혜자 스님이 김태현 제17보병사단 연주소 주지 법사(사진원쪽)에게 초코파이 4만여 개를 전달하고 있다.

불자라면 번뇌·업장을 소멸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전국의 산사를 찾아가 참배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쫓아가다보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기란 녹록치 않다. 그나마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나 불교 명절 법회 등이 열려야 절을 찾게 마련이다. 이런 현실에서 1년 남게 4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식구들을 이끌며 '기도와 봉사'로 불심을 과시하는 스님이 있다. 6·7년 일정으로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끌고 전국 사찰을 돌며 '기도와 봉사행'을 실천하고 있는 선목 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이다.

스님은 12월 7~8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16번째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봉행했다.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계사 곳곳에서 뜻자리나 신문지를 펴놓고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순례객들의 뜨거운 불심은 주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순례 회원들은 행사에 들어가기 전 <천수경> 독경에 이어 대웅전 부처님을 향해 108배를 올렸다.

"기도와 봉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조건 없이 봉사하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봉사하는 동안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되고 저절로 깨달음도 온다고 봅니다."

선목 혜자 스님이 순례처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기도회 회원들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혜자 스님은 순례단을 이끌고 매일 사력이 깊은 사찰 한 곳을 찾아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신심이 깊어지고 고부간 갈등도 사라지며 효심도 높아가는 사실을 목격했다. 순례단 중에는 부부 참가자도 많은데, 부부애가 무척 돈독해졌다고 한다.

서상준(62) 거사·김명화(58) 보살 부부는 "그동안 부부가 함께 절에 가는 일은 드물었는데 여행가는 기본으로 한달에 한 번씩 순종교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기도와 봉사를 하니까 연애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라며 이제는 매일 순

례가 기다려진다고 즐거워했다. 이제 108산사 순례는 단순한 참배 행위가 아니다. 전국에서 온 4000여명의 대구모 순례단이 산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대웅전 앞마당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108배를 올린다.

수많은 인파가 한마음이 돼서 법당이 나 절 마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을 올리는 모습은 장엄하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108번의 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겸손해짐을 느낀다고 한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몸을 낮춘 효과다. 이때 혜자 스님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방문 사찰의 이름이 들어간 염주알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이번에는 '조계사'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지급했다. 염주알을 공손히 받아 염주 주머니에 넣은 순례단은 각자 가지고 온 초코파이 한 통과 쌀을 대웅전 옆에 모은다. 초코파이는 인근 부대 장병들에게, 쌀은 참배 사찰에 나눠 주기 위함이다.

이날 초코파이 4만여 개는 제17보병사단 법당 연주소 김태현 법사에게 전달됐다.

또한 각 회마다 복지기금으로 전달되는 108만원도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을 통해 종로구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순례단은 복서를 농협에서 마련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아카시아 꿀, 참기름, 된장, 오이, 당근 등 농산물을 구입해 농촌 살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혜자 스님은 해인사를 순례하고 나오는 길에 사찰 입구에서 산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이후 가는 곳마다 산사 주변에 직거래 장터가 생겨 단시간에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108산사 순례는 앞으로도 6년 이상이 더 소요되는 대장정입니다. 끝까지

마쳐야 108염주를 만든다는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해 나이 많은 회원들은 이 기간에 아플 수도 늙을 수도 없다며 각오들이 대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살님 한 분이 이 기간에 운명하셨는데, 그 따님이 대를 이어 사찰순례에 나서겠다고 참가하고 있어 감동스럽고 또한 책임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순례기도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신명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대선후보 부인 민혜경 여사, 문국현 대선후보 부인 박수에 여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해 첫 순례는 1월 11·12일 양일간 수원 봉녕사를 찾아가갈 예정이다.

글=김주영 기자 사진=박재관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북교 1번지에서 1등 불심으로 기도

성불 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시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